

강성진, 『축사현상에 관한 실험적 연구』(석사학위 논문,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1979).

『그랜드 종합주석』, 제자원, 서울: 성서교재 간행사, 1991

김광일, “문화변천에 따른 정신질환 개념 및 치료법에 관한 견해 조사”, 『신경정신의학』14 (1975) : 417-427

김태곤, 『민간의 귀신, 한국사상의 원천』, 서울: 박영사, 1973

김영구, 『공관복음에 나타난 치유와 축사현상에 관한 연구』(석사학위 논문 감리교 신학대학원, 1982).

김윤태, 『정신질환에 대한 정신의학적 입장과 기독교적 입장의 상호 관계에 대한 연구』(석사학위 논문, 고려 신학대학원, 1989).

노기돈, 『요한복음에서의 귀신 축출 설화의 부재 이유』(석사학위논문, 장신대 신학대학원, 1991).

손진욱, 이부영, “기독교 교역자들의 정신병관 및 치유개념”, 『신경정신의학』, 22권 1호 (1983), 57-66

신태웅, 강춘오, 『한국의귀신 성서의 귀신』, 서울 : 정원 문화사, 1986

신형균, 손진욱, 우성일, “기독교 교역자들이 주장하는 귀신들림에 대한 정신의학적 고찰”, 『신경정신의학』 30권 6호 (1991)

안홍일, 『베뢰아 이단에 대한 성경적 비판』, (석사학위논문, 고려신학대학원, 1990).

유재구, 『요한복음과 악령 추방설화』, (석사학위논문. 감신대 대학원, 1987), 15-17.

이부영, “전통적 귀신론의 분석심리학적 고찰”, 『정신의학보』 6권 1호 (1982), 2-15

전남순, 『복음서에 나타난 daimonion』, (석사학위논문, 장신대 대학원, 1986).

조 현, 『성경이 말하는 귀신쫓는 방법』, 서울: 할렐루야 서원, 1988

『플립 성경주석』, 플립주석 번역위원회, 서울: 보문 출판사, 1987

하현봉, 박철수, 손진욱, “정신질환자들의 종교적 믿음, 행위 및 체험”, 『신경정신의학』 32권 6호 (1993), 913-927

한성희, 『성경적 마귀론』, (석사학위논문, 고려신학대학원, 1990)

허영구, 『성경에서 본 인간의 질병과 마귀역사와의 관계』, (석사 학위논문, 고려신학 대학원, 1982).

황태주, 『축사에 대한 목회학적 이해』, (박사학위 논문, 아세아 연합 신학대학원, 1987).

임상목회교육에 있어서 효과적인 상담방법

-Jay E. Adams와 S.Hiltner의 이론을 중심으로-
하 원식 (신대원 3)

- 1장/ 서론
- 2장/ 임상 목회 교육의 필요성
- 3장/ 아담스의 목회 상담 이론
- 4장/ 힐트너의 목회 상담이론
- 5장/ 아담스와 힐트너의 상담 방법의 임상적 적용 가능성
- 6장/ 결론

제 1 장 서론

가. 연구과제 및 목적

현대는 세속화와 다원화의 굴레 속에서 전체적 허무의 양상을 띠고 있다. 권력에의 의지는 독재와 전체주의라는 권력의 비대증세로 나타나고, 평등에의 의지는 민주주의와 공산주의라는 이념과 체제와 삶의 대립으로 나타나며 황금에의 의지는 탈선과 방종과 가치관의 상실 그리고 소외로 나타나고 있다. 넘쳐나는 물질만능주의의 풍조 속에서 개인은 사회와 가족과 자기자신으로 부터 소외를 당했고 소외를 느끼는 인간은 더욱 방종과 방탕으로 치우쳐서 결국 현대인의 모든 노력과 삶이 허무로 가득차게 되었다. 이러한 시대에 교회는 공허한 시대를 향한 외침이어야 하며 무기력한 현대인을 향한 내용이어야 한다.

현대는 전문적 목회자를 요구한다. 시대를 직관하고 현대인의 아픔을 이해하며 함께 나누는 영적 전문가를 요구하고 있다. 목회자는 인간의 아픔과 고통의 공유자인 동시에 치유자여야 한다.

임상 목회 교육은 이러한 전문적 목회자를 양성하는 아주 적합한 교육과정이라고 생각한다. 병원은 고쳐하는 모든 유형의 현대인들의 작은 집

합체이다. 병원에서 환자들과 상담하는 과정을 통해서 목회자는 현대인을 이해하게 되고 목회자로서의 전문적 자질을 키우며 객관화된 자신의 내면을 조명하게 된다.

이상과 같이 신학 교육에 있어서 임상 목회 교육이 필요하다는 전제하에 본 논문은 아담스의 성경에 기초한 권면적 상담 방법과 힐트너의 비지시적 상담 방법을 중심으로 효과적인 상담 방법을 논의하고자 한다. 즉 임상 목회에서 효과적인 상담 방법은 아담스의 권면적 상담 방법을 기초로 힐트너의 비지시적 상담 방법을 수용하는 상담자와 환자 상호 존중의 방법이다.

나. 연구 방법 및 범위

본 논문을 연구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문헌을 통한 연구이다. 제 2장은 임상 목회 교육의 필요성을 위주로 임상 목회 교육의 역사와 내용을 다루고 있다. 제3장은 아담스가 주장하는 권면적 상담 이론을 소개하고 제4장은 힐트너가 주장한 비지시적 상담 이론을 소개하고 있다. 제5장은 아담스와 힐트너의 상담 방법의 임상적 적용 가능성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제6장은 전체적인 요약과 주장으로서 전문적 목회자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임상 목회 교육이 필요하며, 임상에서 효과적인 상담 방법은 아담스의 권면적 상담 방법과, 로저스의 비지시적 상담 방법을 목회적 차원으로 끌어올린 힐트너의 비지시적 상담 방법을 포괄적으로 사용할 것을 다룬다.

이와 같은 연구를 위해 각 상담 이론가의 저술, 그에 대한 문헌들 그리고 정기 간행물을 통해 발표된 연구 논문들도 참고 문헌으로 이용한다.

제 2 장 임상목회의 필요성

가. 임상목회 교육의 역사

1920년대 들어서면서 미국 신학 교육에 급격한 변화가 일기 시작했다. 이는 1920년대에 있었던 사회적인 혁명에 기인하는 것이다. 즉, 문헌은 시대의 종말을 노래하고 여성들의 지위는 높아져가고, 제 1차 세계대전의 후유증으로 인한 정치적 혼돈과, 도덕에 대한 종교의 권위 상실로 과학은

우위를 주장하게 되었으며 심리학은 학문의 왕이 되었다. 프로이드가 인기를 끌게 되었고 모든 문제는 과학적인 테두리 안에서 다루게 되었다. 1) 이러한 시대적 영향하에서 임상목회 교육은 전통적인 이론 중심의 신학교육에 대한 반발로 시작된 것이며, 한편으로는 의학 심리학과 사회 사업에 대한 매력에서 기인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

1918년 하버드 대학의 Lowell 총장에 의해 미국 신학교육협의회(American Association of Theological Schools)의 전신인 미국과 캐나다의 신학협의회가 창설되어 모임의 회수가 거듭되면서 교수 목사들을 위한 전문적인 교육 필요성이 강력하게 대두되게 되었다. 특히 목회의 실제적인 훈련을 위해 임상적인 방법을 적용할 것을 요청하기에 이르렀다. 3)

1926년에는 예일 대학의 위글(Luther A. Weigle) 교수에 의해 신학교육의 교과과정 내용을 기능적인 교육의 원칙에 의해 재평가하는 모임이 있었고, 신학이론과 실제적인 전문적 훈련의 균형잡힌 교육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많은 사람들이 목회자들이 사람들의 요구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교육 받고 있지 못함을 한탄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자를 위한 적절한 전문적인 교육 방안을 제시하는 사람들이 없었다. 4)

몬트리올의 연합신학교 학장이었던 리취(D. L. Ritchie)는 신학교육과 행동과학과의 불균형의 관계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면서 급격하게 발전하고 있는 행동과학의 원칙들을 목회신학에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없었는가 하고 묻게 되었다. 5)

1920년대말 하버드의 스페리(W. L. Sperry)학장과 시카고의 학장이었던 매티우스(Shailer Mattews)는 전통적인 신학방법을 배격하고 신학교육의 전문적인 모델을 선택하기로 합의했다.

매티우스는 “인격의 문제를 다룰 때 정신적인 인격적 요소를 이해함과 동시에 병리학적인 이해가 수반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리고 신학에도 과학적이고 심리학적인 정확성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포괄적인 기술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감독자 밑에서 임상적 훈련을 받는 일이 필요하고, 단순히 학점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이며 직업적인 훈련성을 위한 각 분야의 통합된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론적이고

1) 김기복, 「임상목회교육 이론과 실제」 (서울 : 전영사, 1993), 23.

2) ibid., p13

3) American Association of Theological Schools Bulletin, No.0, 1981, 4-5.

4) ibid., Bulletin, No.5, 1926 재인용

5) ibid., Bulletin, No. 5, 1982, 35. 재인용.

학문적인 연구의 기술은 Ph.D 레벨에만 요청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⁶⁾

임상 목회 교육은 과학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와, 개인과 사회적인 경험에 대한 신뢰와, 자연 역사 속에 일어나고 있는 역동적인 과정에 대한 열린 마음이 없었다면 결코 뿌리를 내릴 수 없었을 것이다.⁷⁾

1910년 - 1912년에 걸쳐 전문적인 교육방법은 시학에서 의학으로 관심을 돌리게 되었다. 병원에 실험실이 설치되고 임상적인 훈련이 강조되었으며 강의 위주의 방법에서 사례 연구의 실제적인 방법이 학생들에게 부가되었다.⁸⁾

1924년-1970년에 이르는 기간에 신학교육의 지도자들은 1912년의 의학 교육에서 일어난 변화를 신학교의 교육 과정에 적용하였다. 한 가지 틀린 점은, 오늘날 신학 교육에 대한 과학적인 도전은 자연 과학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 행동 과학의 분야에서도 오고 있다는 것이다. 과학 뿐만 아니라 진보적인 교육 방법에서도 도전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런 면에서 임상 목회 교육은 역사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다. 임상 목회 교육의 지도자들은 신학 교육자들과 협력해서 목회란 사명인 동시에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전문직임을 인식하고 이를 위해 인문 과학 뿐만 아니라 과학적인 방법을 효율적으로 이용한 교육 방법을 채택해서 실천에 옮겨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하게 된 것이다.

역사학자 존 맥닐(John T. McNeil)은 말하기를 “우리는 진정 영혼을 치료하는 역사에 새로운 장을 열어야 한다.”⁹⁾고 했다.

임상 목회 교육의 선구자들은 윌리엄 켈러(William S. Keller)와 앤턴 보이즌(Anton T. Boison)과 리처드 캐봇(Richard C. Cabot)인데,¹⁰⁾ 이들은 정신 분석 이론과는 관계가 없다.¹¹⁾

나. 임상 목회 교육의 내용

1) 교육자료

6) *ibid.*, Bulletin, No. 8, 1932, 16-46. 재인용.

7) 김기복, 「임상목회교육」, 16.

8) Flexner, *Medical Education*, I, xi-xiii. 재인용.

9) John T. McNeil, "Historical Types of Method in the Cure of Souls", *The Crozer Quarterly*, July, 1934, 227. 재인용.

10) 위 사람들은 본 논문 제 4장에서 참조하라.

11) 김기복, 「임상 목회 교육」, 19.

임상 목회 교육의 자료는 공부하는 사람의 직접적인 경험이다. 경험을 통해서 배우는 체험적 학습이 임상 목회 교육의 기본적인 자료가 되는 것이다. 무작정 경험을 해서 주체적으로 무엇인가를 배우면 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은 주체적으로 하지만 전문가인 감독자의 지도를 받으며 관찰하고 느끼고 대화의 내용을 정리해서 전문가의 지적을 받으며 동료들의 느낌과 의견도 들으면서 자신의 장점은 계속 발전시켜 나가고 단점은 수정 보완해 가는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대화록에 나타나는 자신의 모습을 분석해 보고, 대화의 내용에 흐르고 있는 중요한 주제들은 무엇이며, 왜 대화 때에 그렇게 이루어졌는지를 질문하는 것이다.¹²⁾

2) 교육과정

임상 목회 교육의 과정은 대화록을 중심으로 한 대화 사례 연구가 주제가 된다. 임상 목회 교육은 환자를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 경험과 그 대화의 내용을 정리하는 훈련, 그리고 대화록을 중심으로 사례를 연구하는 세 가지 과정으로 되어 있다.

임상 목회 교육은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아니고 그룹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다. 정리된 환자 방문의 대화록이 준비되면 전체 그룹이 한 장소에 모여 한 사람이 그 대화록을 발표하고 서로 질의하고 문제를 제기하고 토의하는 과정을 통해 배우는 것이다.¹³⁾

3) 교육모델

미국의 임상 목회 교육 협회(ACPE)는 아래 네 가지 모델을 그 임상교육의 표준으로 제시하고, 거기에 따른 전문 지도자의 자격과 교육 센터의 인정 범위를 설정한 바 있다.

첫째 모델은, 신학대학원에 입학하여 1년의 과정을 마친 사람으로 목회에 자신감을 길러 주기 위해서 한 학기 동안 교육을 받게 하는 것이다.

둘째 모델은,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안수를 받은 목회 경험이 있는 목회자들을 위한 계속 교육의 형태라고 볼 수 있다.

12) *Ibid.*, 74.

13) *Ibid.*, 75-76.

셋째 모델은, 교육 센터에 와서 1년 동안 교육을 받는 것으로 이를 고
급과정(advanced course)이라고 한다.

넷째 모델은, 자질을 갖춘 교역자로서 임상 목회 교육의 감독자로서의
자격을 얻기 위한 교육이다.¹⁴⁾

4) 대화록(verbatim) 작성방법

병원이나 임상 목회 교육의 현장에서 환자나 내담자를 만나 대화한 내
용을 기록하는 방법은 상당한 기간의 연구 과정을 거쳐 임상 목회 교육
협회에서 다음과 같이 정했다.

날짜	일련번호
원목의 이름	면담 시간
방문 회수	감독자

① 사실 파악과 준비(Facts and Preparation)

환자를 만나기 전에 수집한 자료와 자신의 준비 상황을 점검하는 것이
다.

② 관찰(Observation)

병실에 들어섰을 때 환자를 포함하여 병실 내부 전체에서 느껴지는 인
상을 정리하는 것이다.

③ 면담(Interview)

면담 중에 일어났던 일들을 최대한의 기억력을 동원해서 정확하게 기록
한다. 환자와 주고 받은 언어적 표현뿐만 아니라 비언어적인 표현인 한
숨, 몸짓, 손놀림, 눈물 등을 자세히 기록한다.¹⁵⁾

④ 분석(Analysis)

면담 중에 일어났던 구체적 사실을 검토하면서 왜 대화가 이런 독특한
형태로 전개되었는지 분석해 본다.

⑤ 신학적 의미(Meaning, Theologizing)

신학적으로 어떤 질문을 제기할 수 있으며 어떤 신학적 해답을 줄 수
있겠는가를 물어본다. 자신의 감정, 사상 및 환상 등을 충분히 다루어야
한다.

14) Ibid., 77-78.

15) Ibid., 79-80.

⑥ 앞으로의 계획(Now What?)

이제 여기서부터 어떻게 환자를 도울 수 있을 것인지를 생각해 본다.¹⁶⁾

다. 임상 목회 교육의 필요성

임상 목회 교육은 인간 소외와 인간성 상실의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
을 향하여 복음으로 그 영혼을 치료하고 전인적 구속으로 인도하는 전문
적인 목회자 양성에 적합한 교육과정이다.

특히, 환자들과의 대화를 통해 목회자는 인간 내면을 깊이 이해하게 되
고 또한 자신을 객관화함을 통해서 자신의 부족을 깨닫고 더 나은 자기
개발을 지향하게 된다. 그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
다.

첫째, 목회자의 자기 자각과 자신의 목회 방법이 다른 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탐색한다.

둘째, 임상적 학습 방법에 대한 이해와 활용 방법을 개발한다.

셋째, 동료들과의 대결, 지지 및 해명을 통해서 개인의 통합적 능력을
목회적 기능에 적용하는 방법을 개발한다.

넷째, 개인적이며 전문적인 성장을 위해 감독자를 활용하는 일과 자신
의 목회를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한다.

다섯째, 경험에서 얻어지는 문제에 대한 신학적인 증진과 인간의 상황
을 이해하기 위한 신학과 행동 과학의 연관성을 탐색한다.¹⁷⁾

이상과 같은 점들을 고려할 때 전문적 목회자와 목회 상담가를 양성하
기 위해서는 -신학교육과 목회자 연장 과정 속에- 임상 목회 교육과정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 3 장 Jay E. Adams의 목회 상담 이론

가. 사상적 배경과 기본적 전제

1) 사상적 배경

16) Ibid., 80-81.

17) Ibid., 77.

아담스(Jay E. Adams)박사는 신학교수요, 목회자요, 상담학자요 또한 문필가로서 실천신학 분야를 중심으로 그의 해박한 지식을 전개하고 있다. 18) 그는 목회상담학에 있어서 기독교 전제가 무엇보다 필요하며 지금까지 Rogers, Freud, Skinner의 비기독교적 전제에서 출발된 상담이론에 정면으로 도전하면서 비기독교적 전제를 바탕으로 한 상담이론을 배격하고 성경적 방법(Biblical approach)을 통한 상담이론을 정립하였는데, 그의 성경적 상담이론을 권면적 상담(Nouthetic counseling)이라고 부른다. 19)

그의 신학적 배경에 있어서는, 그의 저서 "성공적인 목회사역"에서 "나의 신학은 개혁주의"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 20)

그는 Calvin을 위시하여 A. Kuyper, H. Bavinck, C. Hodge등의 개혁주의 신학을 바탕으로 목회상담의 이론을 전개하였다. 그는 목회상담의 근거로서, 칼빈주의의 입장에서 인간을 이해하고, 성령은 상담사역의 주체로서 상담의 기초임을 분명히 나타내주고 있다.

아담스는 자신의 사상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사람은 Mowrer였다고 말하고 있다. 그는 "정신의학과 종교의 위기"(The Crisis in Psychiatry and Religion)라는 모월의 책을 읽고 "땅이 흔들리는 것과 같은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다."고 고백한다. 21)

아담스는 1965년 여름 모월이 심리학 교수로 봉직하고 있는 일리노이 대학교(University of Illinois)에서 실시하는 그의 엘리 릴리 펠로우십(Eli Lilly Fellowship) 프로그램에 참석하여 여름집회 동안 모월교수 밑에서 일했다. 22)

이 때의 경험이 아담스의 사상에 큰 변화를 일으켜 주었는데, 모월의 정신의학에 대한 태도가 아담스에게 강한 영향을 주었다. 아담스는 이 훈련을 마치고 나서 다음과 같은 소감을 밝히고 있다. "필자는 기독교 목사로서 모든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결론, 즉 '정신적 질병'에 걸려있는 많은

18) Jay E. Adams, Competent to counsel,

정경숙 역, 「목회상담학」 (서울 : 총신대학 출판부, 1989), 6.

19) Ibid., 119.

20) Jay E. Adams, Shepherding God's Flock Vol. 1 : The Pastoral Life,

정삼진 역, 「성공적인 목회사역」 (서울 : 예수그리스도교회, 1979), 9.

21) Ibid., 9.

22) Jay E. Adams, Competent to Counsel, 정경숙 역, 58.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자에 의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도록 간접적으로 이끌어 준 모월에게 큰 은혜를 입었다. 23)

그러나 모월의 이론에 대한 아담스의 견해에 의하면, "모월의 이론은 처음부터 끝까지 사람에게 두고 있다."고 한다.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법을 부정하고 중생(Regeneration)과 성화(Sanctification)를 시키는데 있어서 성령의 능력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의 전제론적(Presuppositional) 입장은 거부되어야만 한다." 24)는 것이다.

아담스는 기독교적 목회상담에 큰 영향을 미친 대표적 이론이라고 할 수 있는 "프로이드의 정신분석이론" 25)과 "로저스의 비지시적 상담이론" 26)이나 "스키너의 행동주의 상담이론" 27) 등 비기독교 전제를 바탕으로 한 상담이론을 비판한다.

프로이드의 정신분석 이론에 대한 아담스의 견해에 의하면 "프로이드는 피상담자의 문제인 자신의 행동, 태도, 어려움 등을 다른 외부적 원인으로 받아들임으로 피상담자에게는 책임이 없다" 28)고 보기 때문에 그 기본적인 전제는 결과적으로 무책임한 윤리를 낳게 된다. 그러므로 프로이드 주장은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책임을 제외시키고 인간의 죄악된 본능과 법과 양심을 파괴시키려는 노력을 장려하므로 그 기본적인 가르침이 기독교와 대치된다. 로저스에 대한 아담스의 견해에 의하면 로저스의 상담이론

23) Ibid., 62.

24) Jay E. Adams, Competent to Counsel, 62-63.

25) Sigmund Freud, New Introductory Lectures on Psychoanalysis (New York : W.W. Norton and Company, Inc., 1933), 212-213. Freud는 인간의 정신구조를 세 가지 단위의 즉 자아(Ego), 초자아(Super-ego), 원자아(Id)로 구별하였다. 자아는 중재자 혹은 의식적체이다. 프로이드에 의하면 정신병에 걸리는 것은 초자아가 지나치게 사회화되었기 때문이다. 치료는 정신분석의 전문가에 의해서 잘못된 죄의식을 버리고 올바른 감정을 갖도록 하여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표준에 따르는 재사회화(Resocialization)를 시키는 것이다.

26) Carl R. Rogers, Theory of Therapy Personality, 96-97. Rogers의 이론은 자기를 무조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자기의 내적 심층구조를 감정이입적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피상담자가 적극했을 때 그가 지니는 자기개념은 유기체의 전체경험과 완전한 조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27) B.F. Skinner, Walden II. Macmillan, 1948, 274. Skinner는 인간은 환경으로 말미암아 삶의 형태를 이룬다는 동물이라고 이해하며, 인격적인 변화는 통찰력이 아니라, 행위의 조절과 행동개선이러 한다.

28) Jay E. Adams, Pastoral Counseling, 정삼진 역, 「성공적인 목회상담」 (서울 : 예수그리스도교회, 1980), 12-13.

은 자율적이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다는 최악된 인간의 신념인 인본주의적 전제에 근거하고 있으며, 인간에서 시작하여 인간으로 끝나기 때문에 그의 원리는 성령의 원리와 어긋나므로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고 한다.²⁹⁾

스키너에 대한 아담스의 견해에 의하면 “신적으로 창조된 존재로서의 인간은 환경적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유지되는 가치 있는 존재이다.”³⁰⁾라는 것이다.

아담스는 기독교 목회상담에 크게 영향을 미친 상담이론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종합하여 평가하고 있다. 목회상담에 대한 최초의 발전은 주로 자유주의 학자들과 신정통주의 학자들에 의해 증대되어 왔는데,³¹⁾ 그들의 학문적 수고는 잘못된 신학에서 출발하므로 인간관이 비성서적 전제 위에서 있으며 실험적 방법에만 관습을 두었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는 결과를 냈다고 못박아 말하고 있다.

“기초를 파괴하고 그 기초 위에 세우는 건물을 보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비성경적인 전제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전제를 부정하면서 그 전제에서 나온 방법을 채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³²⁾

이와 같이 아담스가 제창한 권면적 상담 이론은 정신 분석학이나 심리학을 근거로 삼지 않고 성경의 원리를 상담의 원리로 도입해서 그 영혼의 문제를 치료하려는 방법론인 것이다.

아담스의 대표적인 저서로는 “The Christian Counselor’s Manual”, “Competent to Counsel”, “More than Remption” 등이 있으며 이 외에도 다수의 저서와 논문들이 있다.³³⁾

2) 기본적인 전제

아담스는 권면적 상담의 이해를 위하여 25가지 전제조건을 제시하고 있다.³⁴⁾ 이것을 세 가지 기본적 전제인 인간이해, 성령이해, 성서이해로 구

29) Jay E. Adams, Competent to Counsel, 정경숙 역, 171.

30) Jay E. Adams, Pastoral Counseling, 정삼진 역, 15.

31) Jay E. Adams, Competent to Counsel, 정경숙 역, 63-65.

32) Ibid., 195.

33) Ibid., 195.

34) Jay E. Adams, Update on Christian Counseling Vol. 1, (Phillipsburg : Presbyterian and Reformed Pub. Co., 1979, p.150.

분하여 생각할 수 있다.

가) 인간이해

인간이 어떤 존재로 이해되느냐 하는 문제는 참으로 중요하다. 아담스에 의하면 ① 타락전의 인간: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요구대로 책임을 갖게 되고 또 책임을 져야만 하는 존재인 것이다.³⁵⁾ ② 타락한 인간: 인간은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타락(Corruption)하였다.³⁶⁾ 이로 인해 인간은 부패했으며, 내면적, 외면적으로 비참한 상태가 되었다. 이 결과,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절대적이며 구속적인 도움이 없이는 최악의 비참한 상태에서 벗어날 수 없다. ③ 영적 인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곧 성령에 의해 중생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삶에서 하나님의 영을 소유하는 자가 영적인 인간이라고 한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영적인 인간이다.³⁷⁾

나) 성령이해

① 성령과 상담

i) 성령의 사역인 상담

아담스에 의하면, 상담은 성령의 사역이다.³⁸⁾ 성령은 그리스도가 그의 제자들에게 하셨던 것과 꼭 같은 종류의 다른 상담자로 오셔서 그리스도의 자리에 계시는 보혜사라고 명명되는 분이다. 유능한 상담자는 성령을 떠나서는 상담을 할 수 없다.

ii) 상담에서 성령의 사역

성령은 믿는 자의 성화를 포함한 모든 참된 인격의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근원이다. 성령의 역할에 대한 인식이 분명할 때에 참된 목회상담이 이루어진다.

② 성령의 사역방법³⁹⁾

i) 성령은 보통 은혜라는 방법을 통해서 믿는 자들의 삶에 영향을 준

35) Ibid., 36.

36) Jay E. Adams, More than Redemption, 139-159.

37) Jay E. Adams, The Big Umbrella and Other and Address On Christian Counseling,

(Phillipsburg : Presbyterian and Reformed Publishing Co., 1979), 150.

38) Jay E. Adams, Competent to Counsel, 95.

39) Ibid., 97-100.

26

다. 성령은 그러한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원리적인 전달 수단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의 봉사와 성찬식과 기도 그리고 하나님 백성들의 교제 등을 사용하신다.

ii) 주권적인 성령의 사역

성령은 힘이나 법이 아니라, 인격이기 때문에 주권적으로 사역하신다. 상담자와 피상담자는 모두 꼭 같이 성령의 주권을 존중해야 한다.

iii)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성령의 사역

성령은 상담자가 그의 말씀 즉, 성경을 사용할 것을 기대하신다. 그리고 이에 대한 성서적 근거로 디모데후서 3:16-17을 들고 있다. 성령이 성경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상담이 성경을 떠난 것이 아니라 성경에 의해 인도함을 받는다는 의미이다.

3) 성서이해

진정한 인간이해는 오직 성서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 40) 아담스에게 있어서 성서는 모든 신앙과 행위의 표준이며 정확무오한 것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그의 목회상담에 있어서도 성서는 모든 판단의 기초와 기준이 되고 있다. 41) 성서는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보다 높은 목적을 제시한다. 그 목적으로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다. 성서는 권면적인 수단 즉,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것 등에 의하여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는 데 유익한 것이다. 42)

나. 목회상담의 원리

1) 권면적 상담의 의미

진정한 기독교 상담에 있어서 그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기독교 상담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시작되어 진정한 크리스찬을 만드는데서 끝난다. 43)

40) E. Thurneysen, Die Lehre von Der Seelsorge.

백근원역, 「목회학원론」(서울 : 성서고재간행회, 1979), 56.

41) Jay E. Adams, 66.

42) Ibid., 132

성경은 왕이시며,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문제를 갖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상담하는데 관하여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지를 알려준다. 44) 아담스는 이러한 상담이론을 '권면적인 상담'(nouthetic counseling)이라고 부르면서, 권면적인 상담이 가장 좋은 입장에서 있는 상담이라고 말하였다. 권면(nouthesis)과 권면하다(noutheteo)라는 말은 '권면적'(nouthetic)이라는 용어에서 나온 명사형과 동사형으로 신약성경에 나온다. 45) '권면'이라는 말의 전통적인 번역들은 '훈계하다', '경고하다', '가르치다' 등등으로 엇갈려 왔는데, '권면'이라는 말의 뜻을 정확하게 전달해 주는 영어 단어는 없다고 아담스는 말한다. 46) 권면적 상담이란 간단하게 정의하면 성경의 원리와 실천대로 상담을 하는 것이다. 47)

2) 권면적 상담의 요소

권면적 상담은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요소, 권면적 상담은 항상 문제를 내포하고 있으며, 극복해야만 하는 장애물을 전제로 하고 있다. 즉, 만나는 사람의 삶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48) 권면(nouthesis)이라는 말은 상담자와 피상담자에 초점을 두고 있다. 권면은 특히 어떤 반항을 하든 안하든 간에 피상담자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어느 경우든지 간에, 권면적인 상담에서 피상담자는 해결을 필요로 하는 그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 49) 그러므로 권면적인 상담은 무엇보다도 먼저 권면적인 상담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어떤 잘못이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인정을 하고 취급을 해야 하는 어떤 잘못과 어떤 죄, 어떤 방해, 어떤 문제, 어떤 어려움, 어떤 필요가 있다는 주장은 권면적인 상담에 있어서 핵심적인 것이다. 다시 말하면 권면적 상담은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시기를 원하시는 피상담자의 조건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권면적 상담의 근본적인 목적은 '효과적인 '인격과 행동의 변화'에 있는 것이다.

43) Jay E. Adams, 「목회상담학」, 119.

44) 오성환, 「목회상담 사례분석」, 71-88.

45) Jay E. Adams, 「목회상담학」, 119.

46) Ibid., 123.

47) Ibid., 132.

48) Ibid., 123-124.

49) Ibid., 124.

권면적인 상담의 개념이 가지고 있는 두번째 요소는 문제를 언어적인 수단에 의해서 권면적으로 해결하는 것이다.⁵⁰⁾ 이것은 트렌치(R. C. Trench)가 말한 것처럼 '말에 의한 훈련'이며, 충고, 비판, 책망에 의한 훈련도 필요할 때에는 해야 한다는 것이다. 행동과 징계에 관한 훈련도 교육(paideia)의 한 방법으로서 훈련하는 것이다.⁵¹⁾ 권면이라는 말 자체에는 공식적인 상담 상황을 포함하거나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공식적인 상담과 비공식적인 상담을 모두 포함하는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성경적인 관용법으로 권면적인 상담이라는 말을 사용할 때는 개인의 행동유형이 성경적인 표준에 부합하도록 개인을 올바르게 변화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⁵²⁾ 아담스는 이러한 권면적인 활동의 특수한 성경적인 실패를 나단 선지자가 우리아와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에게 범죄한 후의 다윗과 만난 것과,⁵³⁾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실패한 베드로를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⁵⁴⁾에서 찾고 있다.⁵⁵⁾ 이와는 반대로 권면적으로 상담하는데 실패한 실패는 사무엘상 3:13절(내가 그 집을 영영토록 심판 하겠다고 그에게 이른 것은 그의 아는 죄악을 인함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에 기록된 엘리 제사장의 태도에서 찾고 있다. 아담스는 엘리가 자기 아들들의 악행을 권면적으로 상담하여 그들을 순수하게 변화시켜야 했었는데 실패하였다고 말한다.

권면적 상담의 셋째 요소는 권면적인 활동의 배후에는 목적이나 동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즉, 권면적 상담은 피상담자를 유익하게 하는 동기를 가지고 있으며, 피상담자를 괴롭히는 그의 생활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권면적 상담은 피상담자로 하여금 장애물을 정면에서 부딪히게 하고, 극복하도록 하며, 그를 벌주는 것이 아니라 돕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다.⁵⁶⁾ 여기에서 권면은 사랑

과, 깊은 관심이라는 동기에서 나온 것이며, 피상담자들을 선하게 하기 위하여,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언어적인 수단을 통하여 상담을 하고 징계를 하며 바로 잡는 것이다. 이와 같이 권면의 동기는 사랑이기 때문에 형벌은 징계적인 형벌이라는 개념까지도 권면적인 상담에서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보는 것이다.⁵⁷⁾

아담스는 바울이 골로새서 1:28(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에서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각 사람을 권면적으로 상담해야 할 것을 기록하였다고 말한다.⁵⁸⁾

3) 권면적 상담의 목적

아담스는 권면적 상담의 목적을 바울이 골로새서 1:28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데에 두고 있다. 좁게는 시편 23:3에 기록된 대로 피상담자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일, 즉 방황하고 찢기우고, 실패하고 낙심한 피상담자를 돕는 활동이지만,⁵⁹⁾ 궁극적으로는 피상담자로 하여금 하나님에 명령하신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사랑을 촉진하도록 하는 것이 이 상담의 목적인 것이다.⁶⁰⁾ 성경적인 사랑의 정의는 하나님의 명령을 성취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사랑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대한 책임적인 관계이다. 사람은 책임을 조건으로 하는 관계 즉 하나님의 명령을 책임적으로 준수하는 것이다.

목회상담에 있어서 권면의 모든 과정은 신중해야 한다고 목회학 문헌들이 특히 강조하고 있는 바와 같이, 권면적 상담에 있어서 상담자는 권면의 목적은 사람을 공동체 밖으로 쫓아내려는 것이 아니라, 권면을 통하여 피상담자를 공동체 안으로 데려와서 바로 잡아주고 화해시키려는 데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⁶¹⁾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권면적 상담의 목적은 크게 둘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영혼 구원이고, 다른 하나는 성숙한 인격과 생활이다. 크

50) Ibid., 125.

51) R.C. Trench, *Synonyms of the New Testament*, 112-114.

52) "성경에서 인격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신앙고백과 회개와 새로운 성경적인 의무로 발달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이것은 합법적인 권면이 아니며 오직 모든 것을 성경의 사역으로 이해해야만 한다. 권면적인 상담은 하나님의 말씀의 언어적인 사역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모든 사역은 오직 성경의 능력에 의해서만 효과적인 수가 있다." Ibid., 126.

53) 사무엘상 12 : 1-15.

54) 욤펍복음 21 : 1-22

55) Jay E. Adams, 「목회상담학」, 126.

56) Ibid., 130.

57) Ibid., 130.

58) Ibid., 24.

59) Ibid., 24.

60) Ibid., 135.

61) Thomas C. Oden, 「목회신학」, 316-3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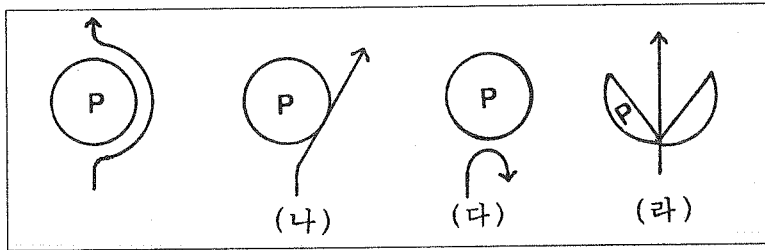
리스찬의 생활이란 성화를 말하는데, 이는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고 날마다 자기를 성찰하므로 건전한 자아관의 확립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동료 인간과의 원만한 대인관계, 그리고 피조물로서 성실하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문화적 사명을 감당하는 생활로 나타나게 된다.⁶²⁾

아담스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죄악된 자신의 삶의 모습을 깨닫고 이를 회개를 통하여 노출시켰던 것처럼, 목회상담이란 자신의 신앙적 잘못을 스스로 밝혀내고 고백함으로써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의 모습을 지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주장한다.⁶³⁾

다. 권면적 상담의 과정

1) 문제에 직면하는 방법

아담스는 문제에 직면하는 네 가지 방법을 다음과 같이 그림으로 표현했다.⁶⁴⁾



첫째, 우회하는 방향 : 문제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태도이다.
 둘째, 문제의 가장자리를 스쳐서 가는 방법 :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엉뚱한 면을 다루는 것으로 잘못 해결하도록 빗나가게 만든다.
 셋째, 문제에서 되돌아옴 : 문제해결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포기하는 태도이다. 첫째에서 셋째까지의 반응은 문제를 제대로 다루지 않고 남겨 둠으로서 인격과 그의 활동의 과정이 결과적으로 변화되지 않는 접근 방법이다. 이것은 사랑의 문제를 용납함으로써 사람이 문제에 의해서 지배를 당한다.

62) Jay E. Adams, 「목회상담학」, 37.
 63) Ibid., 132.
 64) Ibid., 136.

넷째, 문제를 뚫고 지나감 : “그 문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해결될 수 있다.”고 하는 그리스도인의 반응으로 문제를 진실하게 다룬다.

권면적 상담에서는 피상담자들이 그 문제를 용납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배운다. 이렇게 하는 것이 모든 문제를 성경적으로 해결하는 것이다.⁶⁵⁾

2) 문제 해결 과정

아담스는 문제해결의 과정으로 몇 가지 단계를 지적한다. 이것을 통하여 근본적인 문제해결의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⁶⁶⁾

가) 경청하락(Listening)

피상담자가 자신의 문제를 고백할 때 그의 고백을 경청하여야 한다.⁶⁷⁾

나) 이해하락(Understanding)

피상담자가 가지고 있는 자신의 문제를 고백할 때 경청하고 이것을 이해하여야 한다. 문제 이해에는 바탕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은 사랑이다. 이 사랑은 맹목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한 사랑이다.⁶⁸⁾

다) 분석하락(Clarification)

피상담자가 가지고 있는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 분류하고 분석하여야 한다. 분석에는 기준이 있어야 한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⁶⁹⁾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이 단계에서 상담자는 목적(Goal)을 정하고 상담의 전략(Strategy)을 짜야 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편견이나 감정의 영역을 초월하는 것이다.

라) 권면하락(Confrontation)

65) Ibid., 229.
 66) 정경숙, op. cit., 77-82.
 67) 경청하는 것이란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을 관심있게 듣고 적절하게 대답하는 것을 의미한다. 로저스는 이와 반대로 다음과 옹그와 가치판단을 회피하여 개인적인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적용하기를 회피한다.
 68) Jay E. Adams, The Christian Counselor's Manual, 54-55.
 69) 디모데후서 3 : 16.

피상담자에 대하여 깊이 개입하지 말라는 것이 상담에 대한 일반적인 견해이지만 권면적 상담은 반드시 가장 깊은 개입을 구체화하여야 한다. 권면적 상담은 피상담자의 중생과 성화를 목적으로 하고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훈계하고, 권면해야 한다. 상담자가 권면적으로 개입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활용해야 한다. 성경을 통해서 소망을 준다. 그러기 위해서는 상담자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해석하여 적용시킬 수 있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적용시키기 위하여 상담자들은 문제의 성경적 이해와 성경의 목적론적 이해가 있어야 한다.⁷⁰⁾

마) **해결하마(Habituation)**

상담자는 피상담자의 문제에 대하여 권면적으로 개입하므로 피상담자의 인격과 행동에 변화를 가져오고 이를 통해 문제가 해결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는 성령과 성경의 역할을 강조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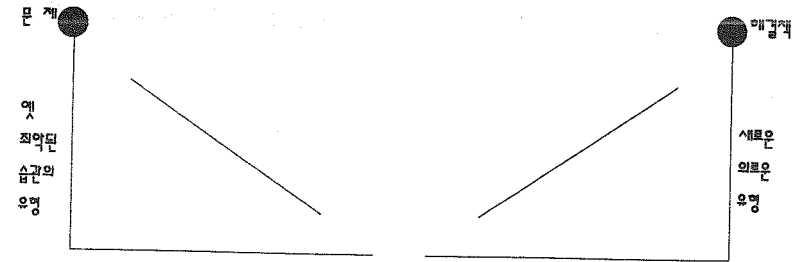
문제의 해결이란 피상담자의 문제에 따라 다르지만 문제를 해결하는데 반복되는 상담과 어느 정도 기간이 필요하다. 아담스는 이 기간이 12주를 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한다.⁷¹⁾

3) 성화의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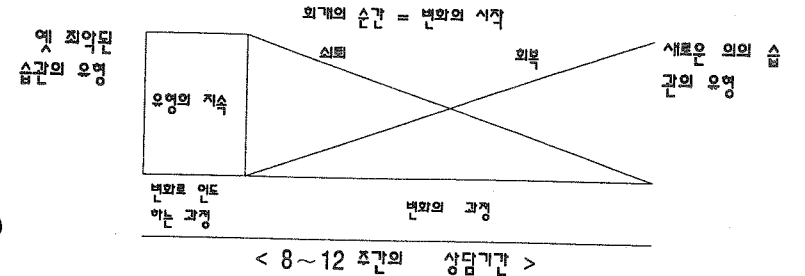
권면적 상담의 목적은 이중적이다. 하나는 영혼 구원이며 하나는 성숙한 인격과 생활 곧 성화(Sanctification)이다. 성화란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고 날마다 자기를 성찰하므로 자아관의 확립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동료 인간과의 원만한 대인관계, 그리고 피조물로서 성실하게 문화적 사명을 감당하는 생활로 나타난다.

상담자는 상담을 신자의 성화의 한 단계로 본다. 여기에는 두 가지의 변화가 나타나는데, 옛 습관을 버리는 것(dehabituation)과 새로운 습관을 입는 것(rehabituation)이다. 아담스는 그의 이론을 다음과 같이 도표로 표시하여 변화의 과정을 묘사하고 있다.⁷²⁾

70) Jay E. Adams, *The Use of the Scripture in Counseling*, 27-42.
 71) Jay E. Adams, *Pastoral Counseling* (Grand Rapids : Baker Books House, 1975), 19-20.
 72) Ibid.



그러나 이 과정은 직선상의 연결된 형태를 이룰 수 없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동시에 일어나는 변화이다. 상담과정은 회개의 순간부터 시작된다. 회개가 일어날 때까지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다.⁷³⁾ (다음의 도표 참



조)

이러한 과정에서는 상담자나 피상담자가 모두 책임이 필요하다. 처음부터 상담자와 피상담자가 다 이 사실을 알아야 할 것이다. 그와 같은 책임을 확실하게 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는데 이렇게 함으로서 그 후에 오게 되는 고통으로 인한 많은 시간을 줄일 수 있게 될 것이다. 이 책임은 전적으로 회개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므로 나오게 된다.⁷⁴⁾

목회상담의 목표는 근접적인 목적과 궁극적인 목적으로 나눌 수 있는데 근접적인 목적은 현재적인 피상담자의 심리적 갈등의 해소와 정서적 안정을 얻게 하며 죄의식으로부터의 해방을 돕는 것⁷⁵⁾으로 할 수 있다. 그러나 궁극적인 목적은 영적인 것으로, 피상담자로 하여금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그 속에서 자신의 삶의 의미와 가치를 찾으며 영원한 구원을 얻도록 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아담스의 권면적 상담

73) Ibid.
 74) Jay E. Adams, *The Christian Counselor's Manual*, 39f.
 75) 반석, 「목회상담개론」 (서울 : 대원각출판사, 1978), 19.

이론이 도움을 줄 수 있다. 분명히 목회상담은 전인구원을 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제 4 장 S. Hiltner의 목회상담 이론

가. Hiltner의 상담이론의 배경

본 장에서는 힐트너(S.Hiltner)의 상담 이론을 형성한 이론적 배경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는 그의 저서인 목회 카운셀링의 서론에서 밝히고 있듯이 그의 심리학적 사색을 발전시킴에 있어서 해리 보웬, 마리아 브리크, 에릭 프롬, 루이스 힐, 그리고 칼 로저스 등의 영향이 컸으며 또한, 에드윈, 오우브리, 쿠쉬만 맥키퍼어트, 알버트, 아우들러, 데이비드, 로버츠 그리고 폴 틸리히 등은 상담과 관련해서 힐트너의 신학적 사색을 추진시키는데 유사한 영향을 주었다. 그리고 미국에서 작용하고 있던 종교 교육 운동과 임상 연구의 발전으로 그의 신학의 형성을 가능케 했으며, 특히 그의 사상은 목회 신학 서론(Preface to Pastoral Theology)과 그리스도교 목회론(The Christian Shepherd)에 잘 나타나 있다. 여기에서는 신학적으로는 쉴라이어마허, 쾨스터, 틸리히, 그리고 목회 상담적 이론은 목회 임상 교육(Clinical Pastoral Education)의 선구자들인 켈러, 캐봇, 및 보이슨 그리고 심리학적으로는 칼 로저스의 인간 잠재 운동의 심리학적 이론적 배경으로 대별하여 시워드 힐트너의 이론적 배경을 파악하고자 한다.

1) 신학적인 배경

힐트너는 쉴라이어마허와 쾨스터 그리고 틸리히 등의 신학적 원리와 유산들을 수용하였다.

가) F. Schreiermacher

쉴라이어마허는 신학과 목회의 양면을 학문적으로 가장 뚜렷하게 연결시킨 최초의 신학자로서 그의 저서 「복음주의 교회 원리에 기초한 실천 신학」(Die Praktische Theologie nach der Grundsätzen der Evangelische r Kirche) 속에서 실천신학은 교회를 유지하고 완성시키는 학문이라고 정의했다. 그는 이러한 기능은 교회와 신학과와의 관계를 인신론적으로 끌어

올리고 이론신학과 실천신학을 변증법적으로 연결시키므로 발휘된다고 보았다.⁷⁶⁾ 곧 실천신학은 이론신학이 정리해 준 개념들을 단순히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목회 과정에서 발견된 자료들을 다시 되돌려 줌으로서 이론신학과 실천신학 사이에 변증법적 관계가 형성되고 신학과 목회 사이에 연결점이 설정된다는 것이다.⁷⁷⁾

나) F. B Köster

그는 그의 저서 목회학 입문서(Lehrbuch der Pastoral Wissenschaft 18 27)에서 목회학의 네 분야를 예배학, 목양학, 설교학 및 교리문답학(오늘의 기독교 교육학)으로 분류했다. 오늘날의 안목에서 보면 이 네 분류는 실천신학 분야의 기능적 조직화였다.⁷⁸⁾

다) Paul Tillich

폴 틸리히는 조직신학자로서 그의 사상적 온상은 낭만주의와 자연신비주의로서 그의 사상 체계에는 철학과 역사가 집약되어 있다. 틸리히의 신학 사상에 있어서 간과할 수 없는 용어로서는 상관관계이다. 이 용어는 새로운 변증법적 신학으로서 질문과 대답, 철학과 신학, 하나님과 인간이 피차 의존해 있다는 것을 표현했다. 질문은 우리의 인간적 상황에 근거해 있고 대답은 신적 계시로부터 주어진다. 이러한 상관관계의 방법을 사용하면서 틸리히는 그리스도교 신앙의 전체 내용을 다섯 부분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각 부분마다 그는 인간 실존 가운데 있는 질문과 신학적 계시로부터 오는 해답을 연관시키려고 한다. 그의 조직신학은 a. 이성계 계시, b. 존재와 하나님, c. 실존과 그리스도, d. 삶과 성령, e. 역사와 신국 등으로 나누어 구분하고 있다.

힐트너가 틸리히의 영향을 받은 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폴 틸리히의 신학적인 방법론이다. 즉 신의 존재 문제 위에 자기의 사상 체계를 기초하지 않고 먼저 인간의 상황에서 출발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 견해로서 힐트너의 목양의 퍼스펙티브란 말의 이해는 폴 틸리히의 방법론적 견지에서 나와서 힐트너의 목회 신학의 체계를 이루게 했던 동기가 되었다.⁷⁹⁾ 들

76) 이계환, 「목회자를 위한 목회신학」, 기독교 사상, 제21권 7호(1979년 7월호), p.91.

77) Seward Hiltner, *Preface of Theology*,

민경배 역, 「목회신학 원론」(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68), 18.

78) 이계환, op. cit, 91.

79) Paul Tillich, *Ultimate Concern*,

제, 톨리히의 상관관계이다. 톨리히는 그의 상관관계의 방법은 실존적인 질문을 통해서 신학적인 대답을 준다고 하고 있다. 그래서 그는 신학은 치유심리학을 포함한 모든 문화 영역에서 방대하고 심오한 실존적 분석의 자료를 사용한다는 것으로서, 문화의 영역에서 제기된 문제 또는 신앙의 영역에서 제기한 문제 등은 각기 다른 영역인 신앙과 문화를 통해서 그 해답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다.⁸⁰⁾ 인간의 깊은 심층심리에 자리잡고 있는 애매한 동기를 심리학이 풀어 주면서 말이다. 힐트너는 이러한 방법을 목회 신학에 응용하여 신앙이라는 것은 문화와 한시도 쉬지 않고 항상 대화를 하고 있을 때라야만 진실하고 타당성 있는 위치를 계속 보존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면서 그는 현대가 심리학적 영적 양상들의 모든 질병들 속에 들어 있다고 주장하면서 힐트너는 정신적인 목양도 현대에 맞게 해 나갈 의무가 있다고 갈파했다. 또한 목회신학이 사용하는 방법 역시 다른 신학과 마찬가지로 계시로부터 출발한다는 것으로서, 여기서 말하는 계시는 사건과 이해가 부합되는 계시이므로 우리는 이해와 수용과 모방과 청취에 진력하여야 하며 또한 타 신학과 마찬가지로 목회신학도 신앙과 문화를 규명해 내는 것이다. 문화의 영역에서 제기되는 문제와 신앙의 영역에서 제기되는 문제가 서로 상호관계 속에서 해답을 얻도록 돕는다는 것이다.

2) 목회상담의 이론적 배경

가) William Keller

켈러는 임상 목회 교육 발전에 초석을 놓은 선구자이며 철학적인 자유주의자로서 사회를 변화시켜 보겠다는 비전을 지녔었고 의사로서의 경험을 살려 실험이 없이 이론에만 치우친 신학교육의 약점을 보충하기 위해서 1923년 자기 집에서 몇 사람의 신학생을 초대해서 그가 소속했던 성공회(Episcopal Church)이란 이름으로 최초로 임상 교육을 실시했다. 이때 신학생들은 교회 밖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간의 문제에 대해 깊이 관찰할 수 있게 되었다.

1927년부터는 학생들의 관찰과 경험을 신학적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도

이계준 역, 「공극적 관점」 (서울 : 대한기독교서회, 1971), 13.

80) Paul Tillich, Theology of culture, 김경수 역, 「문화의 신학」 (서울 : 대한기독교서회, 1981), p.52.

와주는 지도자(Superior)를 세워서 의학과 사회 사업의 방법론을 목회 기 능과 연결시키게 되었다. 이러한 통합적인 방법은 오늘날까지 임상 목회 교육의 표준이 되고 있다. 그는 사회 공학(Social Engineering)의 방법을 활용해서 사회 전체를 변화시켜 보려는 꿈도 꾸었으나 제2차 세계 대전이 터지자 사회적인 꿈은 깨어지고 임상적인 자원만 남게 되었다.⁸¹⁾

나) Richard C. Cabot

케봇은 인간의 전인 치료에 관심을 갖고 있었으며 앤도버 뉴튼 신학교(Andover Newton Theological Seminary)와 연관을 맺고 임상 목회 운동을 전개했다. 그는 의학 교수로서 하버드 대학 의학부에서 가르친 임상 병리 학회의 방법을 임상 목회 교육 방법 속에도 전환시켰다. 곧 의학적인 진단 방법의 하나인 부검(Autopsy)의 원리를 목회적 대화술로 바꾸는데 활 로를 열어 주었다. 그는 이 방법을 통해서 다양한 진단의 방법을 연구했 고 아울러 진단가로서의 자신을 사람들에게 개방하는데 과감했다. 그의 교육 방법론은 디스(Russel Dicks)와 웨어뱅크스 (Rollin Fair Banks)에 의해서 상담가와 내담자를 한꺼번에 진단할 수 있는 임상 대화록으로 발 전했다. 케봇은 임상 병리회의의 방법론을 통해 인간 영혼의 절대적인 요 청은 성장이라고 주장했다. 그래서 그는 목회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환자 속에 감추인 성장의 의미를 새롭게 개발시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므로 목회자의 가장 큰 사명은 성장과 자각의 영역을 넓히도록 자극을 주는 일 이라고 했다. 이것을 위해서 신학자들은 임상신학을 개발하라고 촉구했 다. 그가 뜻하는 임상신학이란 병자와 죽어 가는 자의 절망과 슬픔에 접 한 위기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기능의 신학이다. 그는 복음을 사회 화하거나 심리학화 하는 것을 반대하면서 임상 목회 교육은 철저하게 목 회자의 전문적인 자질을 구하는데 있다고 하였다.⁸²⁾

다) Anton T. Boison

보이슨은 자신의 정신병의 경험을 살려서 신학생 훈련을 위한 효과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그의 목적은 목회 교육에 중점을 두면서 단지 부 수적인 교육을 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는 6살에 아버지를 여의고 20살에 집안에 생존했던 유일한 남성의 상징인 할아버지를 잃게 되므로 정신병에

81) 이계준, 「임상 목회 교육」 (서울 : 전광사, 1993), 28-32.

82) Ibid., 32-40.

빠지게 되었다. 그는 22살에 정신병이 나타나기 시작해서 37년간 정신 질환으로 고통을 당했으나 앤도버 뉴튼 신학교와 하버드 대학 신학부 등에서 케본, 맥두갈 등으로부터 임상적 차원의 교육을 받고 목사가 되어 매사추세츠에 있는 워세스터 주립 병원(Worcester Hospital)의 원장이었던 브라이언(William A. Bryan)과 제휴해서 목회 임상 교육을 계속했다. 안톤 보이슨은 항상 조직적인 목회 신학 수업에 관심을 가졌고 경험적인 방법을 통해서 목회신학의 연구를 본격적으로 시도하였고, 임상신학을 체계화하려고 했다. 이것을 위해 정신 병원만큼 이상적인 장소는 없으며, 살아 움직이는 인간 자신이 가장 중요한 자료를 제공해 준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는 살아있는 인간 자료(living human documents)란 연구 방법을 개발했다. 이 방법은 종교 심리학적 바탕 위에서 전개했으며 종교 경험과 목회자의 전문적인 기능으로 연결하여 죄와 구원의 문제에 대해 그들 자신이 깊은 통찰력을 가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데 있었다.

그는 새로운 신학의 내용을 소개한 것이 아니라 단지 신학 연구에 있어서 한 가지 새로운 방법을 주장한 것이다. 그는 59살에 자신의 정신병이 치유되었으며 88살까지 살면서 30여년 동안 이 분야에 중요한 저서인 「내면 세계의 탐험」(The exploation of inner world, 1936), 「평상과 이상 속에서의 종교」(Religion in Crisis and Custom 1945, 1955)를 출판했다. 보이슨은 자신의 정신질환을 토대로 해서 종교 경험과 정신병을 연관해서 연구했다. 정신과 의사나 심리학자들의 종교 경험에 대한 물이해를 임상적 연구를 통해 다리를 놓으려 했다. 1925년부터 시작한 그의 임상 교육의 최대 공헌 중의 하나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는 치료 과정에 있어서 참여적인 관찰(Participant observation)의 방법이다. 이것은 오늘날 임상 목회 교육의 대화록 작성에 있어서 변함없는 표준이 되고 있다. 그의 신학적인 관심을 계시된 기독교의 진리를 임상 신학과 연결시키는 것이었다. 83)

이 세 사람의 선구자들은 각각 독특한 임상 교육의 목표를 지니고 있었다. 켈러는 사회적 개선을, 케본은 목회의 전문적 자질을, 보이슨은 동료 간의 공동연구를 통한 종교 경험의 세계를 각각 임상 목회 교육을 통해 실현하려고 했다.

3) 심리학적 배경

83) Ibid., 40-58.

가) C. R. Rogers

힐트너는 로저스의 인간 잠재성 운동(Human Potential Movement)의 심리학의 영향을 받았다. 84) 오늘날까지 목회상담학은 로저스의 비지시적 방법(Non-Directive Method)에 힘입은 바가 크다. 로저스는 그의 저서 「상담과 정신 치료」(Counseling and Psychotherapy, 1942)와 「환자 중심의 요법」(Client - Centered Therapy, 1951)을 통해서 상담과 정신 치료를 한 이론 속에 결합시켰다. 85) 로저스의 심리학적 인간 이해는 인간은 조건만 갖추게 되면 잠자고 있는 잠재력을 발휘해서 건강한 자아를 회복시켜 주게 된다고 한다. 이 잠재력이 터져 나오는 힘은 아주 적극적인 것이어서 어떤 힘도 이를 저지할 수 없다는 것이다. 로저스는 이 사실을 자기 실현성의 불가침성(The inviolability of the Selfactualizing Tendency)이라고 정의한다. 이 잠재성의 발동은 곧 구원론으로 연결된다. 86)

그는 그의 구원론에서 자기소외의 조건이 주어졌을 때 구원의 사건으로서의 새로운 관계가 어떻게 조성될 수 있겠는가? 인간에게 자기 자신의 참 모습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비참한 의지의 속박의 역동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무엇이 자기각성의 새로운 가능성과, 자기성취, 자기수용 그리고 자기 자신과의 화해를 위한 새로운 가능성을 가져다 줄 것인가?

로저스에 의하면 구원 사건은 자기 자신과 대화를 이루고 있으며 공명적인 인간의 무조건적 긍정적 배려에 의해서 증대되는 것이다. 무조건적인 긍정적 배려의 의미를 신학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뜻 깊은 일이다. 로저스에 의하면, 그것은 그 순간 내담자에게 어떤 느낌들-두려움, 혼돈, 상실, 자만, 분노, 증오, 사랑, 용기 또는 경외심 등-을 치료자가 진심으로 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치료자가 내담자를 비소유적인 방식으로 보살피는 것을 말한다. 즉 치료자가 내담자를 조건적인 입장에서가 아니라 전체적인 입장에서 대우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내담자의 내면에 무엇이 들어 있는지 간에 그를 따뜻하고 긍정적이며 수용적인 태도로서 대하는 것이다. 87) 칼 로저스의 신학은 인간의 본래성은 무조건적 긍정적

84) 이계산, 「페스트랄 캐머의 신학과 문제점」, 「신학과 세계」, 제4호 (서울 : 감리교 신학대학, 1978) 271.

85) 이계산, 「칼로저스와 목회상담」, 「연대목회」, 통권 19호 (1983년 11월호), 42.

86) 이계산, op. cit., 69-72.

87) Thomas Oden, *Kerygma and Counseling*, 이계산, 김성민 역, 「케리그마와 상담」 (서울 : 전망사, 1983), 108 -110.

배려와 조화적인 공명에 대한 응답으로써 인간에게는 자기 성취를 향한 성장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사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⁸⁸⁾ 그는 인간의 본래성을 향한 성장에는 일곱 가지의 단계가 있다고 했으며 그 유형을 명료하게 그려내고 있다.

첫째, 치료의 최초의 단계는 부조화 상태로서 내적 교류가 차단되어 있으며 그것은 자기소외 상태이다. 둘째, 사람들이 공명적이며 긍정적인 배려를 경험하기 시작함에 따라 그의 자기표현이 비록 그가 거기에 대해 아무런 개인적인 책임감도 느끼지 못하는 비자기적인 주제들에 의해 제한을 받고 있기는 하지만 그는 자기의 느낌대로 느끼기 시작하며 자기표현을 할 수 있게 된다. 셋째, 적당한 시기에 이것은 그의 자기와 관련되어 보다 자유롭게 말로써 표현하게 된다. 경험이 비록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과거 시제로 묘사되고 있기는 하지만 상징적인 표현이 점차 사라지게 되고 느낌에 대한 구별이 없어지며, 그의 자기개념 속에서 내면적인 모순을 점차 깨닫기 시작하게 된다. 넷째, 결국 그의 느낌들은 현재 시제로서 표현되게 된다. 자기노출 과정에 있어서 아직도 상당한 불신을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점차로 자기 표현이 정확해지며, 자기 자신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고자 한다. 다섯째, 다섯 번째 단계에 이르게 되면 그의 느낌들은 더욱 자연스럽게 현재 시제로서 표현되게 되며 보다 증가된 자기 의식을 가지고 그 느낌들이 더욱 완전하게 경험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내면적인 교류를 막고 있던 장애물이 제거되며 점차 자기 내부의 모순에 직면할 수 있게 된다. 여섯째, 드디어 개인의 성장은 진정한 하나의 과정으로서의 특질을 갖추게 된다. 상징화는 급격하게 개선된다. 점점 현재의 경험과 감정들을 즉시 용납하게 된다. 일곱째, 마지막 단계에서 요법은 마무리 단계에 이르게 된다. 변화무쌍한 느낌들에 대한 주체성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게 되며, 자기 자신의 유기체로서의 평가 과정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감이 계속 증가하게 된다. 새로운 감정들을 그때 그 때 체험하게 된다. 그의 경험은 구조적인 한계 양상들을 잃어버리게 되며, 로저스가 과정 경험이라고 불렀던 것으로 변화된다.⁸⁹⁾

이상과 같이 힐트너를 이해하기 위해서 그와 관련된 인물들의 배경과 신학 사상을 살펴보았다.

나. 기본적 전제와 접근책

1) 목회 상담의 목적과 전제

가) 목적

목회상담의 목적은 어떤 의미에서 교회 그 자체의 목적과 동일하다. 즉, 사람들은 그리스도에게 또는 크리스찬과의 사귄으로 인내하여 그들이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자유로운 선물인 구원을 받아들이도록 도와주고 또 그들이 형제의 사귄과 사랑을 가지고 친구와 함께 살아가도록 도와주며, 이전의 의심과 불안 대신에 신앙과 확신을 가지고 행동할 수 있게 하며, 불화가 지배하던 곳에 평화를 가져오는 일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⁹⁰⁾

힐트너는 이와 같은 교회와 목사가 일반적으로 삼고 있는 것 이외에도 특유한 목적을 목회 상담이 지니고 있다고 말한다.

목회 상담의 특유한 목적이란 사람들에게 그들 자신의 내적 갈등에 대한 이해를 가지게 하는 과정을 통해서 자력으로 일어날 수 있게 하기 위한 목사의 시도라고 할 수 있다.⁹¹⁾ 상담은 때때로 정서의 재교육이라고 일컬어진다. 그것은 상담이 당장 사람들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그들을 도와주려는 시도에 덧붙여서 다른 문제가 일어났을 때에도 어떻게 하면 스스로가 해결할 수 있는가를 그들에게 가르쳐야 한다. 목회상담은 내담자의 자기관리가 스스로 이루어지게 하는 관계 수립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나) 목회상담의 기본적 전제

① 상담을 받는 상담자 자신이 무엇이 잘못되어 있음을 느끼고 또한 그 문제가 자기 자신 안에 있음을 인식한다.

② 상담은 내담자의 찬동이나 불찬동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상담은 이해로서 진행되는 것이다.

③ 상담은 내담자를 위해서 무엇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담자 자신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88) Carl R. Rogers, On Becoming a person (Boston : Houghton Mifflin, 1961), 27.

89) 토마스 C. 프든, op. cit., 116-118.

90) Seward Hiltner, Pastoral Counseling, 마경일 역, 「목회 상담」 (서울 : 대한기독교서회 ; 1982), 18.

91) Ibid., 19-28.

④ 상담은 윤리적인 문제를 명확히 하는 일도 포함하지만 강압을 해서는 안된다.

⑤ 상담의 입장은 상담자에 대한 진정한 존경심을 가져야 하고 속임수를 써서 전개해서는 안된다.

⑥ 상담을 위한 기회가 되는 상황들은 상담자에 의하여 그리고는 마침내는 내담자에 의하여 꼭 문제 해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담자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이 되기도 한다.⁹²⁾

이와 같은 가정 아래에서 시워드 힐트너는 목회상담을 하나의 과정(Pastoral Counseling is a Process)이라고 말하고, 이 과정은 현재의 주어진 상태에서 목사가 내담자로 하여금 스스로 자신을 도울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으로써, 기성 형식의 충고라던가 권면 혹은 명령으로써 내담자에게 피동적 행동을 취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내담자 자신이 자기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용기와 통찰력을 가지게끔 도와주는 것이다.

2) 상담의 접근책과 방법

힐트너는 목회상담을 이해하는데 두 가지 방법을 효과적인 방법으로 제시하고 있다. 첫째는 심리적 역학(psychological Dynamics)과 생활사(Life Histories)의 연구이다. 상대가 현재의 상태에 빠지게 된 여러 원인의 조사에서 시작하여 그를 어떻게 도울 수 있는가 하는 것과, 그리고 상담의 검토에로 옮겨가는 방식이다.

두번째는 접근책(approach)과 방법(methods)에서 시작하여 역학(Dynamics)의 연구에로 향하는 길이다.

이 두 가지 방법들 중에서 힐트너는 후자의 방법이 보다 빠르고 또한 유효하다고 믿고 있다. 또한 그는 목회 상담의 배후에 있는 근본 목표를 추구하는 몇 가지 견해를

- ① 사회 적응설(The Social- adjustment view)
- ② 내적 해방설(The Inner - release view)
- ③ 객관적 윤리설(The objective - ethical view)
- ④ 기독교 신학설(The Christive - theological view)

로 나누면서 목사는 특수한 실천의 마당에서 상담을 실시한다고 그는

92) Ibid., 18-19.

말하고 있다. 목사의 자각의 유무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떤 특별한 이론적 입장, 인간의 본성에 대한 어떤 특별한 교의의 기초 위에서 상담을 실시한다. 인간의 본성을 둘러싸고 현대 신학의 견해는 갈라지지만 그러한 차이는 기독교적 견해와 여러 가지 세속적 견해와의 차이에 비할 때에 별로 의미가 없는 것이다.

이러한 여러 가지 견해가 상담의 실제 활동에 제약을 주는 일은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으로 보았다.⁹³⁾

다. 힐트너의 비지시적 상담 과정

1) 상담에 있어서의 역동 심리학과 과정

가) 역동 심리학(Dynamic Psychology)

힐트너는 목회상담에 유용한 심리학적 이해로서 역동 심리학을 들고 있다. 그는 역동 심리학을 움직이며 움직여지고, 동기를 주며 동기를 받으며, 생물학적인 수준과 같은 수준과 함께, 인간의 사회적 수준에 하나의 단위로써 작용하고 있는 인격의 사회심리학이다.

그는 역동 심리학이 목회상담에 영향을 주는 가장 중요한 결론들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첫째, 모든 행위에는 의미가 있다. 아무리 대수롭지 않은 행동도 단지 터무니없는 것만은 아니다. 인간의 모든 행위에는 의미가 있다는 사실은 어떤 행동도 제멋대로 되는 것이 없다는 사실을 부정하고 있다.

행위에는 의미가 있고 또 인격은 - 그 갈등에도 불구하고 - 일관되어 있는 것이다. 이것은 상담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으로서 그 의미하는 바는 스스로 명백하다라고 그는 말하고 있다.

둘째, 행위의 의미는 우리가 지각적 의식과 인격에 영향을 주며 그 활동에 작용하는 심층과의 양면을 관찰하는 때에만 이해할 수가 있다. 그러나 그 심층이란 보통은 의식 안에서는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인격의 모든 측면의 빛에 비추어 볼 때에만 그 의미를 안다. 그것은 인격에는 움직이고 있는 생명적인 부분은 혹은 여러 국면이 있는데, 그것들이 보통은 의식되지 않으나 생각을 포함한 행위 전체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점이다.

셋째, 인격의 성장은 갈등의 부재에 의해서가 아니라 갈등의 적극적 처리를 통해서 진전하는 것이다.⁹⁴⁾

93) Ibid., 28-37.

넷째, 현실의 인간은 의식적으로 인지되고 격리되어 온 인격의 특별한 여러 측면 이상이라는 것이 상례이다. 강조된 인격의 여러 측면의 선택이 너무 지나치게 좁을 때 혹은 상담이라든가 실제 생활의 경험으로 인지가 그 사람의 경험 전 영역을 포함할 만큼 확대될 때 마음의 건강은 언제나 더 커지는 것이다.

다섯째, 필요한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창조적이며, 역동적인 힘을 그 개인안에 이미 현존하고 있는 것이어서 밖으로부터 부어 넣어질 필요는 없다.

여섯째, 어떠한 사람의 인생 향로라도 다른 사람의 것과는 같지 않다는 것이다. 기본적인 기질의 차이가 있고 분명히 인간적인 또는 사회적인 수준에도 많은 차이가 있다.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의 존재를 발견하는 필요성을 용인하지 않는 한, - 그것을 위하여 도움이 필요할지도 모르나 - 그가 승인하거나 하지 않거나 그는 언제까지나 내면의 갈등에 잠긴 채로 있을 것이다.

일곱째, 어떤 사람의 생애에 일어나는 한 사건의 의미는 그 자체의 연구만으로는 결코 명백하게 할 수 없고 차라리 그 사건과 그의 인격 전체나 성격의 형태와의 관계를 관찰하는 것으로서 명백하게 할 수 있는 것이다.⁹⁴⁾ 즉 우리가 그의 준거의 틀(frame of reference)을 이해할 때에만 그를 이해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성격의 형태란 모든 특성의 도표나 여러 가지 면의 집계가 아니라 그 사람이 취하고 있는 방향을 통합한 개념이다. 이점을 가장 잘 나타내는 것은 그가 무엇을 지각하며 무엇을 지각하지 못하는가, 또는 그가 말로 표시하거나 아니하거나 간에 무엇을 진정으로 추구하고 있는가를 연구하는 일이다.

성격의 형태에는 그것을 형성해 온 선행사건들이 있는데 대부분은 그 유래를 더듬을 수 있는 것이지만 성격 안에서 끊임없이 활동하고 있는 역동적인 요소는 그 성격안에 현존하고 있다. 그래서 상담에서는 그 사람의 과거의 생활사를 다룰 수 있고 다루지 않을 수도 있다. 다룰 경우에는 현재에도 활동하고 있는 역동적인 형태를 설명하기 위해서이고, 다루지 않을 경우에는 소급해서 회고하지 않아도 그러한 형태가 분명히 되는 경우이다.

94) Ibid., 89-93.
95) Ibid., 68-99.

나) 상담의 과정

힐트너는 목회상담을 하나의 과정으로 보았다.⁹⁶⁾ 그것을 어떤 주어진 시간에서의 목사와 교회 신도와의 관계를 바라보기만 하면 그것을 검토할 수 있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시간의 넓이에 걸친 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목회상담은 어떤 조건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거기서 신도가 자기의 힘으로 일어서도록 돕는 목사의 시도인 것이다.

교회신도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도움을 구하고 문제의 얼마만큼은 그 자신 안에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 자각하고 그 문제 혹은 그 상황의 해결에로 향하기 위해서 적어도 그 자신 안에 있는 것을 변화시키고 싶다는 소원을 품고, 목사도 교회신도가 자기의 힘으로 일어서도록 돕는 것이 목사의 일이라고 인식하였을 때, 비로소 상담과정은 진행되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그는 목회상담은 무엇보다도 시간적 넓이에서 일어나는 과정이라는 점을 특히 언급하면서, 목회상담 과정을 단기 상담과 장기 상담으로 구분하고 있다.⁹⁷⁾

① 단기 상담

전체로 수 주간을 넘지 않는 기간에 2, 3회 혹은 6회 또는 12회 정도 상담을 하는 행위를 힐트너는 단기 상담으로 보았다. 이러한 단기 상담이 목사에게 필요한 이유는 첫째, 목사의 시간적 제약이다. 목회 활동과 목회 상담 이외에 목사는 예배를 사회하고 설교하며 교육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역 사회에 대한 교회의 사회적 실천을 지도하며 교회의 사무와 여러 그룹들의 계획들을 관리 운영 활동의 전반적인 목회 사역의 일로 인하여 시간의 제약을 받기 때문에 목회 상담은 단기 상담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둘째, 목사가 받은 훈련에서 오는 제한 때문이다. 즉, 목사가 여러 가지 면에서 진행하기 어려운 장기 상담을 받을 전문적인 훈련을 받지 않은 이유이다. 셋째, 장기 상담에는 단기 상담에서는 일어나지 않는 그 무슨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다. 그러므로 목사가 받은 훈련은 장기 상담에 속달게 지도된 경험을 포함하고 있어야 하는데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훈련이 부족하기 때문에 장기 상담이 단기 상담의 경우보다도 더 복잡한 문제가 제시되므로 대부분의 목사들은 자기들의 손이 닿지 않는 깊이까지 들어가지 않는 것이 현명하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면서

96) Ibid., 100.
97) Ibid., 100-101.

그는 단기 상담이 수행할 수 있는 기본적인 기능을 세 가지로 들고 있다. 첫째는 교회의 신도가 자기의 상황에 관해서 마지막 모퉁이를 돌게(turn - the - corner)할 수 있게 하는 일이다. 즉, 삶의 방향을 전환시키는 기능이다. 둘째는 통찰을 달성하게 하는 기능이다. 셋째는 지지적(supportive) 상담 역할을 하는 기능이다.⁹⁸⁾ 이 기능은 어떤 중대한 혹은 파국적인 변화가 신도의 세계를 뒤집어 엮었을 때에 목사가 하는 상담이다. 그러므로 그는 단기 상담이 목사의 상담업무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고 이 상담의 목표는 모퉁이를 돌게 하는(turn - the - corner) 데 있다고 하였다. 모퉁이를 돈다는 말은 방향이 전환되었다는 뜻이다. 목사의 관심사가 되는 많은 문제들은 생활 환경의 문제들로써, 그것을 통계적으로 볼 때 정상에 가까운 것으로서 우리가 개개인의 상황을 말고 보면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문제들이 사람이 가지는 견해가 좁고 부적당할 때는 악화되며, 만일 그가 고비를 넘겨 자기 행동에 대한 약간의 통찰력을 얻었을 때는 갈등이 해소되고 그가 설 수 있는 새로운 견해와 위치를 갖게 된다.

그러므로 단기 상담은 이런 새로운 전망의 기회를 만들어 주어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교회 신도들이 자발적이고 성공적으로 자기 문제를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⁹⁹⁾

② 장기 상담

장기 상담은 단기 상담과 비교하여 세 가지 장점을 들 수 있다. 첫째, 장기 상담은 단기 상담과는 달리 어떤 단계를 지난 뒤에 관계가 확실히 굳어졌다고 상담자가 확신한다면 그는 방법상에서 큰 모험을 강행할 수가 있다는 점이다. 둘째, 장기 상담은 시간이 갈수록 보다 깊은 문제가 노출될 수가 있는 점이다. 셋째, 교회 신도가 목사에 대해서 품고 있는 기대에 관계가 되다는 점이다. 즉, 목사를 대하는 신도의 태도가 장기 상담에서는 단기 상담에서의 그것과는 확실히 다르다는 장점이 있다. 첫째 상황은 목사 이외의 다른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상담자가 근처에 없을 경우이다. 둘째 상황은 목사가 장기 상담을 할 자격이 인정되는 특수 훈련을 받은 경우와 장기 상담을 함으로써 목회의 여러 임무와의 알력이 일어나지 않을 경우이다. 셋째 상황은 목사가 전문적 치료와 협력해서 하는 경우이다.¹⁰⁰⁾ 힐트너는 장기 상담은 단기 상담보다 강압적이거나 진취적 또는

98) Ibid., 104-105.

99) Ibid., 101-106.

100) Ibid., 100-110.

○ 지시적이 아니라고 했는데 이것은 단기 상담이라는 것은 훈계적이거나 지시적이어도 무방하다는 뜻으로 해석하였다. 따라서 그의 상담은 의사와 환자와의 관계를 넘어서서 목사와 교회 신도와의 관계로 발전시키려고 하였다.

2) 상담의 원리와 특징

가) 상담의 원리

힐트너는 상담의 원리를 다음 다섯 가지로 들고 있다. 첫째, 상담의 과정은 교회 신도가 처한 상황과 그것에 대한 그의 감정에 관심의 초점을 맞춘다. 둘째, 상담은 교회 신도가 자기의 상황을 어떻게 느끼고 있는가를 목사가 참으로 이해하고 또는 목사가 그것을 이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에게 전달해 줌으로써 진전된다. 셋째, 교회 신도가 갈등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상담에서 나타날 때 목사는 7 먼저 갈등의 여러 원인과 그것들이 신도에게 미치고 있는 상관적인 작용을 신도가 자각하기를 돕는다. 넷째, 상담의 관계에서 신도는 특별한 제한과 함께 특별한 자유를 가진다. 다섯째, 상담의 과정에는 달성된 통찰이나 획득된 명확화의 정리 통합(Consolidation)을 돕는 적절한 기회가 1회 혹은 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¹⁰¹⁾

나) 상담의 특징

힐트너의 목회 상담의 기본적인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회 신도가 자신이 무엇이 잘못되어 있음을 느끼든지 아니면 적어도 어느 정도 문제가 자신 안에 있음을 느끼고 있을 때 비로소 진실한 상담 관계는 설정된다. 둘째, 목회 활동의 대부분은 보다 구체적인 견지에서 볼 때, 그것은 상담 활동이 아니라 예비 상담 활동이다. 셋째, 상담과 예비 목회 상담에 있어서 목사의 접근법은 한마디로 연역적인 방법이 되어야 한다. 넷째, 목회 상담은 단순한 기계적인 과정이 아니라, 내담자의 감정과 문제들을 명료화하는데 집중되거나 그들이 시도하고자 하는 점에 동의하는 데서 존재하는 인간관계이다. 다섯째, 목회 상담이 일반 상담과 구별되는 기준은 기본적인 태도와 접근법과 방법이 아니라 상담자들의 다양한 직분에 의해 구별된다. 여섯째, 목회 상담의 효과를 위해서는 이론적 이해와 실천적

101) Ibid., 56-66.

이해 그리고 양자 사이의 관계성에 대한 연구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한다. 102)

힐트너의 내담자를 중심한 비지시적인 방법으로서 상담자는 내담자에게 어떤 것을 하도록 특별히 고안된 상담의 기교를 수행하는 자로서 보다는 특별한 존재 방식과 자세를 갖고 상담에 임하는 자로서 특징 지을 수 있다.

그러므로 상담자의 기능은 상담 분위기를 조성하여 상담의 진행을 따라 내담자의 성장을 촉진시키는 일이다. 내담자 중심 상담에서 상담자는 협조적인 관계를 조성하여 내담자로 하여금 이제까지 인식하기를 거절했거나 왜곡시켜온 삶의 영역을 탐구하는데 필수적인 자유를 경험하게 해주는 일이다.

제 5 장 아담스와 힐트너의 상담 방법의 임상적 적용 가능성

가. 병원 환자들의 다양성

병원에 입원하는 환자들은 영적으로 두 분류로 구분할 수 있다.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의 확신을 소유한 크리스천과 복음을 알지 못하는 비크리스천이다. 기독교에 대한 비기독교인 환자들의 태도 또한 다양하다. 복음에 대해 전혀 모르는 환자, 기독교에 대하여 혐오하는 타종교인, 특히 종교를 윤리적 규범 내지, 종교적 다원주의에 빠져 있는 환자들이 많다. 또한 오랫동안 살아오면서 기독교에 대해 어느 정도 호감을 가진 환자들도 있다. 중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은 다양한 공포를 가지고 있다. 발케이 그레자(Glaser)와 안세롭 스트라우스(Strauss)가 쓴 「죽음의 인식」(Awareness of Death)에 의하면 환자들은 의사로부터 포기되어 버려진다는 공포, 죽음에 대한 공포, 현재의 상태는 자신에 대한 형벌이며 그에 대해 참아야 한다는 공포, 수입이 없어지고 의료비가 필요하다는 것 등 경제적인 어려움에 빠질 것이라는 공포, 추악하게 된다는 공포, 움직일 수 없게 될 것이라는 무서움, 약해져 갈 것이라는 무서움, 가족들에게 부담을 주게 된

102) Seward Hiltner, *The Counselor in counseling*, (New York : Abingdon Cokesbury press, 1952), 10-11.

다는 공포, 자신이 스스로를 돌볼 수 없다는 공포,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받을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공포, 지능을 상실할 것이라는 공포, 자기 이미지를 상실할 것이라는 공포, 충분한 시간이 없다는 공포, 죽는 편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독약을 먹일지도 모른다는 공포, 외관의 변화와 더불어 거절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공포, 자제심이 없어지는 것에 대한 공포. 성격 기능을 상실한다는 공포, 사람을 알지 못하게 되는 공포, 불안해하는 가족으로부터 추궁 받는다는 공포, 사실을 알려주지 않을 것이라는 공포¹⁰³⁾ 등 다양한 공포를 느끼고 있으며 이러한 공포는 그들의 강렬한 내적 요구이기도 하다.

따라서 원활한 상담을 하기 위해서는 환자들의 영적 상태와 정신적 상태를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 아담스와 힐트너의 상담 방법의 한계

전술한 바와 같이 병원 환자들의 심성의 다양성의 측면에서 볼 때 아담스와 힐트너의 상담 방법은 4가지 측면에서 그 한계를 가지고 있다.

1) 상담 이론의 한계

권면적 상담 이론의 한계는 인간의 죄의 본성만을 상담의 관심과 대상으로 삼기 때문에 고통 속에 신음하는 환자의 외부인 육체적인 면이 무시되는 단점이 있다. 또한 힐트너는 그의 상담이론이 로저스의 유기론적 인간 이해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에 근거해서 성경의 도우심을 구하는 영적인 면을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권면적 상담 이론은 수직적 차원의 구원에 치우쳤고, 힐트너의 비지시적 상담은 수평적 차원의 구원에 치우침으로¹⁰⁴⁾ 그리스도인의 전인적(全人的) 구속의 능력을 약화시켜 버린다.

2) 상담 방법의 한계

아담스는 성경적 전제론(Presupposition)적 방법을 상담에 사용하며,

103) 조우영, 「오스펙스」(서울 : 연문사, 1991), 57-59.

104) 오성훈, 「목회상담사백문서」, 14.

일체의 학문적 연구나 자세를 부인한다. 즉, 비성경적인 원리에서 출발한 일반 심리학적인 상담을 용납하지 않고, 오직 성경에서 피상담자의 필요를 찾고 있다. 따라서 믿음이 없는 환자나 영적 필요를 느끼지 않는 환자에게는 호소력이 없다. 또한 힐트너의 상담 방법은 상담을 내담자의 인격과 감정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수용하는 비지시적인 내담자 중심의 역동적 과정¹⁰⁵⁾으로 보기에 환자가 울분을 토하는 감정해소에 상담의 중요성이 주어지고 목회자의 영적 지도력이 소홀히 된다.

3) 피상담자와 상담자의 한계

아담스의 이론은 피상담자가 상담자만을 의리하게 되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그러므로 피상담자가 자신의 책임을 전혀 느끼지 않음으로써, 상태가 악화되었을 때, 상담자에게 그 책임을 전가(轉嫁)시킬 수 있다. ¹⁰⁶⁾ 또한 힐트너의 상담 방법은 내담자 중심으로 상담자가 피동적일 수밖에 없기에 상담자는 상담을 기도와 영혼을 사랑하는 구령의 열정보다 단순히 들어주고 동의의 표시만 하는 기계적 역할자로 국한될 수 있다.

4) 전체적 한계

그러므로 아담스의 상담 방법은 다양한 욕구와 고통 속에 신음하는 환자들을 자칫 죄와 벌이라는 인과응보에 치우쳐서 오히려 환자들이 마음의 문을 닫기가 쉽고, 힐트너의 방법은 환자의 내면적 분출에만 초점을 맞추다가 오히려 핵심을 빠뜨릴 수 있다.

제 6 장 결 론

임상 목회 교육은 전통적인 이론 중심의 신학 교육에 대한 반발과 심리학과의 사회 사업에 대한 매력에서 생겨났다. 임상 목회 교육의 연구자들은 윌리엄 켈러(William S. Keller)와 앤턴 보이슨(Anton T. Boison)과 리처

105) Seward Hiltner, *Pastoral Counseling*, 마경일 역, 「목회 상담학」(서울 : 대한기독교서회, 1982), 100.

106) Duncun, 천정웅 역, 「예수의 상담과 실제」(서울 : 아가페 출판사, 1987), 195.

드 캐봇(Richard C. Cabot)이며 대화록을 작성해서 자신의 객관화를 통해 자기 성찰, 자기 개발을 실현한다.

임상 목회를 위한 효과적인 상담 방법으로는 아담스의 권면적 상담 방법과 힐트너의 비지시적 상담 방법을 들 수 있다.

아담스는 상담에 있어서 성경적 접근(biblical approach)을 제시하고 있으며, 성경적 접근이란 첫째, 성경에서 그 동기를 찾고, 둘째, 성경을 그 전제조건으로 하여, 셋째, 성경의 목표를 뼈대로 삼아, 넷째, 성경의 모델로 주어지고 명령된 원리와 실체에 따라 조직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다.

그러나 아담스의 상담 방법은 실제로 병원에서 적용하기가 어렵다. 환자들은 육신의 고통을 통해 영적 갈급함을 느끼기도 하지만 대개는 육신의 질병 때문에 지쳐있고, 그로 인해 마음 속에 강한 울분과 억눌림이 잠재해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믿지 않는 사람의 경우에는 더욱 접근하기 어렵다.

모든 심리학 자체를 비성경적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런 점에서 인간을 이해하기 위하여 인간 심리에 대한 연구를 기초로 목회 상담의 수준까지 끌어올린 힐트너의 시도는 높이 평가할 만하다.

힐트너의 비지시적 상담 이론의 배경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진다. 신학적 배경으로는 쉘라이어마허, 쾨스트, 티리히의 영향 하에서 힐트너는 신학의 체계를 잡았고, 목회 상담적 이론에서는 켈러, 캐봇, 보이슨등의 영향을 받았으며, 심리학적 배경으로는 로저스의 영향 아래에 있다.

힐트너는 로저스의 인간 잠재성의 원리를 활용해서 유기체의 조화로운 기능은 몸에 대한 깊은 이해를 통해서 더 높은 차원으로 상승할 수 있는 잠재력이 발휘된다는 유기론적 이해를 도입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힐트너의 상담 방법은 효과를 위해선 소위 세속적인 정신요법과 상담 방법들이 최대한 사용할 수 있다는 방법론을 제시해 주고 있다. 그러나 힐트너의 상담 방법은 비록 로저스의 인간 중심적 상담 방법의 한계성을 보완하고, 그 상담 목표와 전망(perspective)이 다르다 할지라도 그의 방법은 자율적 인간 이해에 근거한 로저스의 방법의 연장선상에 있다.

인간은 때때로 스스로 길을 찾기도 하지만, 대개는 말씀으로 권면을 받고 참회의 심정으로 돌아오는 탕자와 같은 경우가 많다. 쌓였던 내면의 호소도 필요하지만 궁극적으로 말씀 속에서 빛을 찾아야 한다.

따라서 아담스와 힐트너 두 사람의 방법을 토대로 임상 목회에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담자는 말씀으로 권면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고 동시에 환자를 면밀히 파악하여 환자들의 다양한 내적 불안을 인지해야 한다. 그리하여 영적 필요를 느끼는 환자들에게 바로 아담스의 권면적 상담을 사용하여 영적 권면을 하고, 영적 욕구가 없는 환자들에게는 우선 힐트너의 내담자 중심의 비지시적 상담 방법을 적용해서 내담자와 상호 인간적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영적 욕구를 자극시키고 영적 권면을 한다.

고려신학보

참고문헌

1. 국문도서

그리스도교대사전편찬위원회, 「그리스도교대사전」(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72).
 김기복, 「임상목회교육 -이론과실제-」(서울: 전방사, 1993).
 반피득, 「목회상담개론」(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78).
 오성춘, 「목회상담 사례분석」(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출판국, 1991).
 이기춘, 「목회자를 위한 목회신학」 기독교사상, 제21권 7호,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79).
 조유향, 「호스피스」(서울: 현문사, 1991).
 이기춘, 「Pastoral Care의 신학과 그 문제점」, 「신학과 세계」, 4호 (서울: 감리교신학대학, 1978).
 -----, 「칼 로저스와 목회상담」, 「현대목회」, 통권19호, (1983.11.).

2. 영문도서

Adams, Jay E., Competent to counsel, 정정숙 역, 「목회상담학」 (서울: 총신대학출판부, 1989).
 -----, The Big Umbrella, 전동신 역, 「복음주의적 목회상담」 (서울: 성광문화사, 1983).
 -----, Christian Living in the Home (Pittsburg: Presbyterian and Reformed Publishing Co., 1979).
 -----, More than Redemption (Phillisburg : Presbyterian and Reformed Publishing Co., 1979).
 -----, Update on Christian Counseling Vol.1 (Phillipsburg : Presbyterian and Ref. Pub. Co., 1979).
 -----, What about Nouthetic Counseling? (Nutley, N.J.: Presbyterian and Reformed Publishing Co., 1976).
 -----, The Christian Counselor's Manual (Grand Rapids : Baker Book House, 1973).
 -----, The Pastoral Life, 정삼지 역, 「성공적인 목회사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82).
 -----, Pastoral Counseling, 정삼지 역, 「성공적인 목회상담」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87).
 -----, Pastoral Leadership, 정삼지 역, 「성공적인 목회지도」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88).

-----, A Theology of Christian Counseling, 전동식역, 「상담신학」
(서울 : 기독교출판사, 1990).

-----, The Use of the Scriptures in Counseling, (Nutley, N. J.: Presbyterian and Reformed Publishing Co., 1975).

-----, The Christian Counselor's New Testament, (Nutley, N.J.: P-
resbyterian and Reformed Publ.Co., 1977).

Boy, Angelo V. and Pine, Gerald J., Client-Centered Counseling,
이상로역, 「내담자 중심의 상담」 (서울: 중앙적성연구소, 1976).

Brister, C. W., The Promise of Counseling, 민병소역, 「상담과 정신의학의
대화」 (서울 : 성광문화사, 1981).

-----, The Promise of Counseling, 오성춘역, 「현대인의 절망과
희망」 (서울 : 홍익사, 1986).

Buckanan, Duncan, 천정웅 역, 「예수의상담과 실제」(서울: 아가페출판사, 1987).

Colby K. M., A Primer For Psycho Therapists, 이근후 역, 「정신치료
어떻게 하는가」 (서울 : 삼일당, 1979).

Crabb, Lawrence J., Effective Biblical Counseling, 정정숙역, 「성경적
상담학」 (서울 : 총신대학출판부, 1982).

Freud, Sigmund, Newintroduutory Lectures on Psychoanalysis(N.Y.:W. W. Nort-
on and Company, CO., 1993).

Hiltner, Seward, Pastoral Counseling (New York : Abingdon Press, 1949),
마경일 역, 「목회 카운셀링」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82).

-----, Preface to Pastoral Theology (N.Y. : Abingdon Press, 1958), 민경
배 역, 「목회신학 원론」 (서울 : 대한기독교서회, 1968).

-----, The Counselor in Counseling (New York: Abingdon Press, 1952).

-----, The Christian Shepherd, Some Aspects of Pastoral Care. Huntley,
박종열역, 「목회상담학」 (서울: 복된 말씀사, 1970).

Kierkegaard, Sören, The Sickness Unto Peath (Prinston : Prinston Univ. Pr-
-ess, 1941).

Oden, Thonas, Kerygma and Counseling, 이기훈, 김성민 역, 「케리그마와 상
담」 (서울 : 전망사, 1983).

Ruth H. Folta, 정정숙역 「영적간호-기독교간호원의 역할」(서울: 대흥출판사, 1985).

Rogers, Carl R., Client-Centered Therapy: Its Current Practice Implication
and Theory (Boston : Houghton, 1950).

-----,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한승호 역, 「카운셀링의 이론과
실제」 (서울 : 집문당, 1975).

-----, On Becoming a Person(Boston:Houghton Mifflin Co., 1961).

-----, Persons or Science? A Philosophical Questions (American Psy-
-chologist, 1956).

-----, The Therapeutic Relationship and Its Impact : A Study of Ps-
-ychotherapy with Schizophrenics (Madison Wis:Univ. of Wisconsin
-in Press, 1967).

-----, Theory of Therapy Personality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
As Developed in the Clientcentered framework, Ir S.Koch (Ed.),
Psychology : A Study of a Science, Vol.3 (N.Y. : Mc Graw-Hill,
1959. Skinner, B. F., Walden II, Macmillan, 1948).

Tillich, Paul, Ultimate Concern, 이계준 역, 「궁극적 관심」 (서울 : 대한기
독교서회, 1971).

---, Theology of Culture, 김경수역, 「문화와신학」(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81).

Thurneysen, E., Die Lehre Von Der Seelsorge, 박근원 역, 「목회학 원론」 (서
울 : 성서교재간행사, 1979).